**샌드크래프트와 풍력발전 장치군 - 가마야하마 해수욕장**

미타네초의 가마야하마 해수욕장은 잔잔하고 맑은 바다와 넓은 모래사장이 매력이며 일본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. 2006년에는 ‘일본 쾌수욕장 100선(快水浴場百選)’에 선정되었으며, 일본해(한국 동해)에 지는 석양의 멋진 경치 때문에 ‘선셋 비치 가마야하마’라고 불립니다. 이 가마야하마의 독특한 풍경은 2019년 촬영된 영화 ‘데이 앤 나잇’의 해변 장면에 사용되었습니다.

**풍력발전 풍차**

가마야하마 해수욕장의 또 다른 특징은 해안에 3km에 걸쳐 늘어선 18기의 하얗고 큰 풍력발전 풍차입니다. 풍력발전 풍차의 높이는 63m이며, 날개 길이는 102m에 달합니다. 이 발전 풍차를 통해 약 17,000세대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전력인 연간 최대 5,400kWh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초당 3m의 풍속에서 회전할 수 있으며, 풍속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.

**모래조각**

매년 7월 말이 되면 해변에서 ‘샌드크래프트 in 미타네’가 개최되며, 일본 국내외에서 모래 조각가들이 모여듭니다. 모래 예술가들은 모래를 사용해 거대하고 복잡한 조각을 제작하고 정착제를 바깥쪽 층에 섞어 세세한 부분을 유지합니다. 가장 큰 조각은 높이가 3m가 넘고, 완성까지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양한 부문에서 상이 수여되며, 축제에서는 라이브 음악과 불꽃놀이 등의 이벤트가 개최됩니다. 모래 조각은 8월 말까지 전시됩니다.

5월부터 10월까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캠핑카를 포함해 차량 1,1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. 해변 근처에는 화장실, 유료 샤워 시설, 카페가 있으며, 이 시설들은 동절기에는 폐쇄됩니다. 가마야하마 해수욕장에는 노시로역에서 차로 25~30분이면 도착합니다.